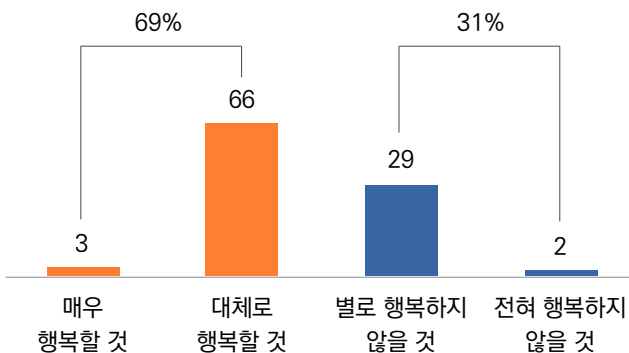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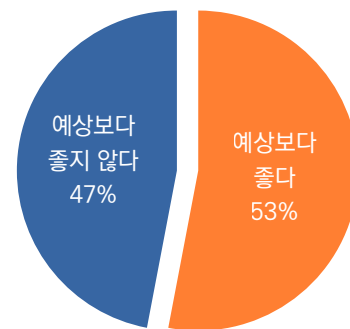
[베이비붐 1세대(1955~1963년생)의 노년 생활 인식] 베이비붐 1세대 10명 중 7명, '노년 행복할 것'!

- 지난 주에 이어 베이비붐 1세대(1955~1963년생)에 대한 조사 결과(문화일보)를 다룬다. 이번에는 이들 그룹의 노년 생활 인식을 살펴본다.
- 향후 노년 생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물은 결과, 베이비붐 1세대 10명 중 7명(69%)은 '행복할 것'(매우+대체로)이라고 답해, '행복하지 않을 것'(전혀+별로, 31%)이란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.
- 한편, '은퇴 전 예상했던 것 대비 현재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'를 묻는 질문에는 '좋다'(예상보다 훨씬+좋은 편) 53%, '좋지 않다'(예상보다 훨씬+좋지 않은 편) 47%로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.

[그림] 향후 노년 생활에 대한 전망
(베이비붐 1세대(1955~1963년생, 62~70세), %)



[그림] 은퇴 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한 현재의 건강 상태
(베이비붐 1세대(1955~1963년생, 62~70세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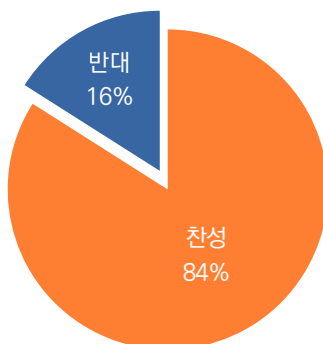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문화일보, "나는 아직 노인이 아닌데... 사회서 할 수 있는 역할있어"[창간 34주년 특집], 2025.10.30. (<https://www.munhwa.com/article/11543062>) (조사개요: 1955~1963년 출생 베이비붐 1세대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10.17.~10.22., 엠브레인퍼블릭)

베이비붐 1세대 84%, 정년퇴직 시기 연장 '찬성'!

- 법정 정년퇴직 시기(만 60세) 연장에 대한 인식에는 '찬성'(84%)이 압도적으로 나타나, 액티브 시니어로서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.

[그림] 법정 정년퇴직 시기 연장에 대한 인식
(베이비붐 1세대(1955~1963년생, 62~70세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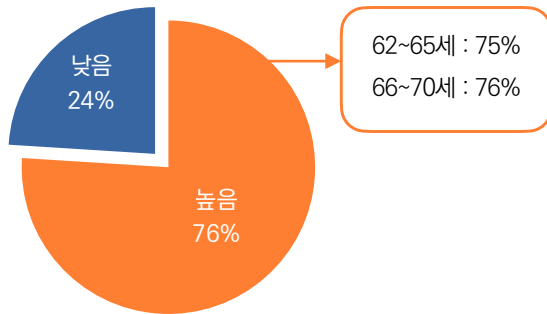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문화일보, "나는 아직 노인이 아닌데... 사회서 할 수 있는 역할있어"[창간 34주년 특집], 2025.10.30. (<https://www.munhwa.com/article/11543062>) (조사개요: 1955~1963년 출생 베이비붐 1세대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10.17.~10.22., 엠브레인퍼블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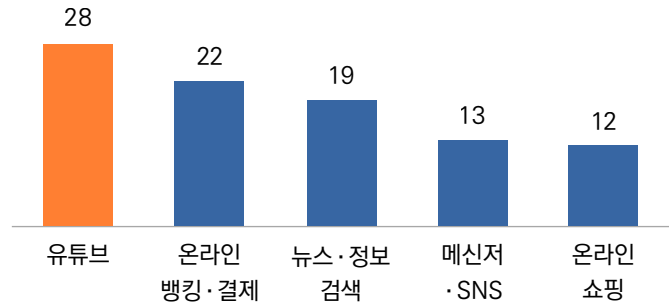
베이비붐 1세대 4명 중 3명, 디지털기기 충분히 잘 활용한다!

- 베이비붐 1세대의 '스마트폰·인터넷 등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'을 살펴본다. 베이비붐 1세대 4명 중 3명(76%)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이 '높다'(매우+대체로)고 응답해, 스스로 디지털기기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.
-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로는 '유튜브'(28%)가 가장 높았고, '온라인 banking·결제'(22%), '뉴스·정보 검색'(19%) 등이 뒤를 이었다.

[그림] 디지털 활용 능력 (베이비붐 1세대
(1955~1963년생, 62~70세))



[그림]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
(베이비붐 1세대(1955~1963년생, 62~70세), 상위 5개, %)



*출처 : 문화일보, “무인 키오스크·앱 주문 불편하지 않다” 60.2%[창간 34주년 특집], 2025.10.30. (<https://www.munhwa.com/article/11543060>)
(조사개요: 1955~1963년 출생 베이비붐 1세대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10.17.~10.22., 엠브레인퍼블릭)